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8. 10.(화)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 과장 오성익, 사무관 차상현, 주무관 김장일 • ☎ (044) 201-3520, 3523
보도일시	2021년 8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입문에서 활용까지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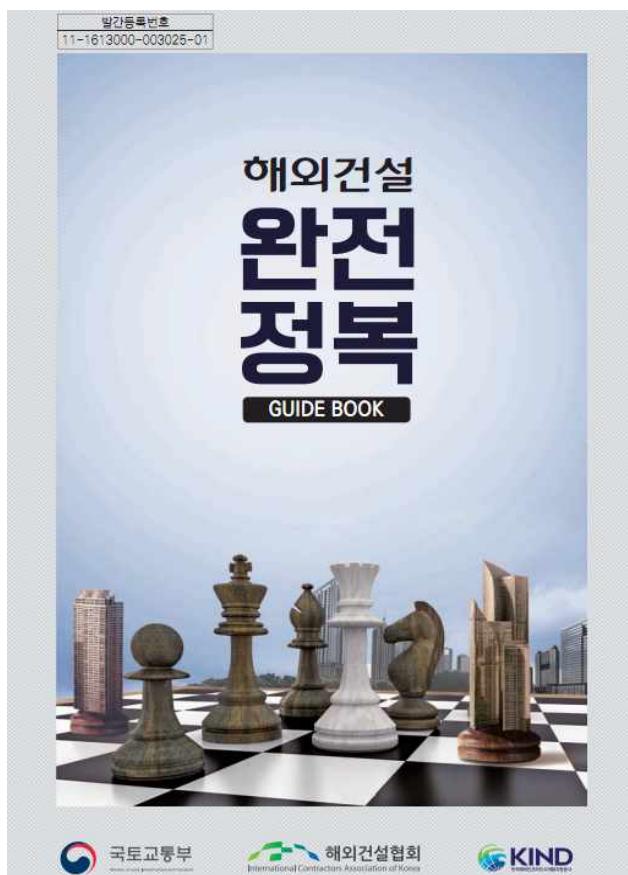
- 해외건설 수주지원 돋는 종합안내서… 11일부터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돋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돋는 종합안내서 「해외건설 완전정복」 을 8월 11일 공식 출간하였다.
- 「해외건설 완전정복」 은 △ 해외건설의 이해, △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사업, △ 재외공관 지원분야, △ 알기 쉬운 해외건설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각 단원별로 맨 앞장에 읽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중점사항(Check Point)과 마지막장에 요약정리를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특히, 「해외건설 완전정복」 은 해외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와의 상관관계 등 해외 건설의 특징을 초반에 다루면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무엇보다도 기획, 사업화 지원, 수행 등 해외건설 진출 단계별로 **MIP**(마스터 플랜), **FIS**(타당성 조사), 교육프로그램 등 부처별 다양한 해외 신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과 **MDB**(다자개발은행), **ECA**(수출신용기관)과 같은 금융조달 방안과 다양한 컨설팅사업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수주 관련 사진 등을 총 망라해 집대성 한 점이 부각된다.
- 또한, 재외공관에서 해외건설기업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해외건설 용어집도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연수생 및 학생, 해외건설 수주를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외공관 등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은 단순히 외화 획득 차원을 넘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의 일환으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면서,
- “앞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8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 건설정책과 차상현 사무관(☎044-201-35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해외건설 완전정복 이해	1. 해외건설이란? 8 가. 해외건설의 역사 8 나. 해외건설의 위상 14 다. 무역과 다른 프로세스 15 라. 현지 특수성 16 마. 국제유가와 큰 상관관계 19 바. 관리집약적 산업 20 사. 금융조달의 중요성 증가 21 단원 요약 22
2 해외건설 시장동향	23 가. 해외건설시장 규모 및 특징 23 나. 우리기업의 강점 25 다. 아시아지역 시장 동향 25 라. 중동지역 시장 동향 28 마. 선진권역 및 신총시장 동향 32 단원 요약 35
3 해외건설 트렌드	36 가. 참여형태별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 사례 36 1) 도급형 프로젝트 37 2) 개발형 프로젝트 40 나. 모듈러 건설 43 다. 해외건설 영역 확장 가능성 45

36 해외건설의 이해

3 해외건설 트렌드

Check Point

- 참여형태별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 사례 (도급형프로젝트)
 - 단순도급 사업은 발주자가 금융 등 전반을 담당하고 건설플랜트사는 단순시공 또는 설계-조달-시공(EPC) 등을 담당
 - 시공자 금융사업은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차주·발주처) (개발형프로젝트)
 -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공자가 SPC로 투자하거나 사업비를 조달
- 모듈러 건설
- 해외건설의 범위 확장 가능성

가. 참여형태별 프로젝트 사례

- 일반적으로 일반도급 공사에서 건설사는 EPC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시공자 금융주선형과 인프라 개발사업은 EPC+금융(Financing)이 요구됨
- 시공자 금융주선형은 도급형 사업으로 건설사는 자금조달만 주선, 상황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액 수령
- 인프라 개발사업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분류되며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건설사의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
 - * 건설사가 발주처에 기획과 수익분석을 통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PPP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도급 사업의 범위는 F/S,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단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원은 발주처 예산이지만 ODA, ECA, MDB, 기금(Fund) 등 복잡, 다양화되고 있음
 - 기금, MDB 활용 및 시공자에게 금융주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문

도급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정보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진출환경 조사(현지 로펌&회계법인) - 사업정보 입수 및 프로젝트 발굴(발주처, 지사 등) 	F/S
사전자격심사 (PQ)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재무상태(일반정보, 재정, 송송기록 등) - 유사 실적(국내실적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기술 및 수행능력(현장 운영, 공법, 사업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하도급 및 기자재 공급처 등) 	PQ 질의서
입찰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시시서 및 격려서(가격산정) - 시방서 및 입찰 도면 - 물량 내역서(B/Q) 및 보증서(입찰보증) 	PQ 통과사
계약협상&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금액, 공기, 특별&일반 조건 등) - FIDIC 국제표준계약조건 적용 - 보증서(선수금 및 이행 보증) 	낙찰사
착공(시작)	- 현장가설 및 인력 동원, 구매 및 하도급 관리	발주처
시공(관리)	- 공정(안전, 환경, 품질 등), 리스크 관리	계약사
완료 (물리적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riation Order Request → 계약 변경 - 프로젝트 경비 정산 - 준공기서 서류 제출 등 	*
인도 (최종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플랜트), 하자(토건) 검토 - 준공 증명서(FAC) 접수 	*

* 이상 도급사업 진행절차, 2020년 해외건설 실무지침서 재구성